

정론 사 랑 하 라 우 리 의 것 을

우리 조국의 성스러운 70년, 그 역사의 첫걸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던가.
조국해방전쟁을 앞두었던 시기 어느 한 나라 당지도인사는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 인민의 건국사업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주었으면 좋겠는가고 말씀올린적이 있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평 민 국과 페허로 된 강토가 기다리고 향일의 형진만리를 헤치 시느라 빈 배낭뿐이었지만 그의 결심은 얼마나 확고한것이었던가.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경모의 눈길로 우러르며 그 인사는 무려대고 도울을 청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라고, 이것이 바로 헤르츠 나라와 헤르츠 나라의 차이인것 같다고 절절히 말씀드리었다.

헤르츠 나라!
우리의 70년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거니와...
역사의 온갖 도전과 광풍을 맞받아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고 자기의 힘으로 번영의 람을 쌓으며 강국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조국은 오늘도 헤르츠는 나라로 만방에 존엄떨치고있다.

봄이 왔다. 어느덧 겨울은 지나고 얼었던 나무가지에도 파랑새 꽃이 오르는 조선의 이 봄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우리의 것에 대한 창조적 새 소식으로 어디서나 꽃이 피고있다.
우리의것이 늘어나고 힘없이 창조되어 이 봄의 향기는 우리의 생활에서부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부터 오고있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핵심인 양대동강변에 거창하게 솟아있는 미려파향대동강이 좋다.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운반로켓트인양 말 그대로 우주속도로 일떠서는 속성의 과학기술전당도 대단하다. 보양생들의 꿈같은 새 집-평양시양로원과 먼바다로 만선의 배길을 열며 동해지역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수산기지... 이 모든것은 조국의 재부가 커지고 장차 세계를 딛고 오를 우리의것이 늘어나는 장대한 승결과이 이것이야말로 이 봄의 제일 멋진 꽃이 아닌가.

우리의것이 늘어나고 힘없이 창조되어 이 봄의 향기를 우리 생활에서부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부터 오고있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핵심인 양대동강변에 거창하게 솟아있는 미려파향대동강이 좋다.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운반로켓트인양 말 그대로 우주속도로 일떠서는 속성의 과학기술전당도 대단하다. 보양생들의 꿈같은 새 집-평양시양로원과 먼바다로 만선의 배길을 열며 동해지역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수산기지... 이 모든것은 조국의 재부가 커지고 장차 세계를 딛고 오를 우리의것이 늘어나는 장대한 승결과이 이것이야말로 이 봄의 제일 멋진 꽃이 아닌가.

우리의것이 늘어나고 힘없이 창조되어 이 봄의 향기를 우리 생활에서부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부터 오고있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핵심인 양대동강변에 거창하게 솟아있는 미려파향대동강이 좋다.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운반로켓트인양 말 그대로 우주속도로 일떠서는 속성의 과학기술전당도 대단하다. 보양생들의 꿈같은 새 집-평양시양로원과 먼바다로 만선의 배길을 열며 동해지역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수산기지... 이 모든것은 조국의 재부가 커지고 장차 세계를 딛고 오를 우리의것이 늘어나는 장대한 승결과이 이것이야말로 이 봄의 제일 멋진 꽃이 아닌가.

우리의것이 늘어나고 힘없이 창조되어 이 봄의 향기를 우리 생활에서부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부터 오고있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핵심인 양대동강변에 거창하게 솟아있는 미려파향대동강이 좋다.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운반로켓트인양 말 그대로 우주속도로 일떠서는 속성의 과학기술전당도 대단하다. 보양생들의 꿈같은 새 집-평양시양로원과 먼바다로 만선의 배길을 열며 동해지역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수산기지... 이 모든것은 조국의 재부가 커지고 장차 세계를 딛고 오를 우리의것이 늘어나는 장대한 승결과이 이것이야말로 이 봄의 제일 멋진 꽃이 아닌가.

우리의것이 늘어나고 힘없이 창조되어 이 봄의 향기를 우리 생활에서부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부터 오고있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핵심인 양대동강변에 거창하게 솟아있는 미려파향대동강이 좋다.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운반로켓트인양 말 그대로 우주속도로 일떠서는 속성의 과학기술전당도 대단하다. 보양생들의 꿈같은 새 집-평양시양로원과 먼바다로 만선의 배길을 열며 동해지역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수산기지... 이 모든것은 조국의 재부가 커지고 장차 세계를 딛고 오를 우리의것이 늘어나는 장대한 승결과이 이것이야말로 이 봄의 제일 멋진 꽃이 아닌가.

우리의것이 늘어나고 힘없이 창조되어 이 봄의 향기를 우리 생활에서부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부터 오고있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핵심인 양대동강변에 거창하게 솟아있는 미려파향대동강이 좋다.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운반로켓트인양 말 그대로 우주속도로 일떠서는 속성의 과학기술전당도 대단하다. 보양생들의 꿈같은 새 집-평양시양로원과 먼바다로 만선의 배길을 열며 동해지역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수산기지... 이 모든것은 조국의 재부가 커지고 장차 세계를 딛고 오를 우리의것이 늘어나는 장대한 승결과이 이것이야말로 이 봄의 제일 멋진 꽃이 아닌가.

우리의것이 늘어나고 힘없이 창조되어 이 봄의 향기를 우리 생활에서부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부터 오고있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핵심인 양대동강변에 거창하게 솟아있는 미려파향대동강이 좋다.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운반로켓트인양 말 그대로 우주속도로 일떠서는 속성의 과학기술전당도 대단하다. 보양생들의 꿈같은 새 집-평양시양로원과 먼바다로 만선의 배길을 열며 동해지역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수산기지... 이 모든것은 조국의 재부가 커지고 장차 세계를 딛고 오를 우리의것이 늘어나는 장대한 승결과이 이것이야말로 이 봄의 제일 멋진 꽃이 아닌가.

송도원국계소년단야영소, 현대화된 우리 식의 수산기지들과 새 세기 본보기, 표준공장들을 비롯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최첨단 건축물들이 가는 곳마다 일떠서 이 땅을 문명의 새웃으로 단장하였다. 우주로 날아오르는 위성도 우리의것, 조신의것이었고 조국은 자랑높은 또 하나의 이름,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자기의것으로 가지었다.
한두부분이 아니라 전반적부분에서,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세계적인 우위의 것이 늘어나는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정조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내 조국이 날을 따라 더욱 강대해지고있다는것이다. 전반적부분이 활력에 넘치고 종합적국력이 강화되고있는 국가만이 세계를 앞서나가는 자기의것을 이렇듯 현숙적으로 광범히 창조해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어나가는 애국현신의 기풍이 차분차분 하여야 합니다.»
목숨처럼 귀중한 우리의것이다. 하나의 제품, 하나의 건축물에도 우리의 힘과 지혜, 존엄과 기개가 비껴있다. 선렬들의 념원이 스며들고 우리의 꿈과 리상이 깃들었다. 우리의 기호에 맞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것이기에 그것은 더욱 소중하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억대의 재부보다 귀중한것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자기의것이 없는 나라, 남의것으로 가득한 부흥은 없이 없는 생애적의 결과다. 발을 딛고 서있다고 자랑이 아니다. 자기의것이 없이 남의것을 통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 모든것을 남에게서 수입해서 쓰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한 속국이고 새 세기의 노예들인것이다.
사회주의기법이 내리워진 어느 한 나라에서 있는 국제적인 토론회장에서 자본주의의 억만장자가 한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기를 극구 찬양하는 좌파국사자들에게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였다.
우리의 모든 경제체제는 사실상 당신들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것이다. 우리의 모든 상사, 회사들이 걸려있는 구호는 바로 당신들이 사회주의시기에 내걸었던 구호들이다. ...

남의 현란한 불빛에 시야가 흐려져 우월한 자의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것은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그것으로 하여 그들은 역사를 거꾸로 생각해 되었고 결국 해가 지는 나라로 되였다. 참다운 번영의 해, 부흥의 태양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것을 창조해내는 땅에서만 솟아오른다.
진정 오늘날 참다운 애국은 어디에 있는가.

고향마을 양지바른 곳에 제손으로 정성껏 피운 하나의 꽃송이도 귀중하다. 조국의 조종함을 시나 노래에 담고 우리 선수들의 승리를 두고 눈물흘리는 마음도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하고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한 애국은 세상을 뒤흔든 우리의것, 누구도 만들어낼수 없는 우리의것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내는 창조적 애국에 있다. 눈부신 창조야말로 우리를 키워주고 자래워준 어머니조국이 이 시각 자기의 자식들에게서 애라게 기다리는 최고의 애국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시대가 불러는 참다운 애국자이다.
우리의것!

제국주의와의 총결산전이 벌어지고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부흥으로 최후승리의 시간표가 결정되는 오늘 이 부름은 승리라든 말, 번영이라는 말, 목숨이라는 말처럼 순간순간 천만의 가슴을 더 새차게

생산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부식도생산이 다른 작업반보다 뛰어난 장래라는것을 로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식도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고 주체농부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으면 알곡생산은 지금보다 더 늘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부식도 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이어 주변의 논밭들과 저수지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업반장에게 작업반에서 저수지를 옆에 두고 고고 신세를 지지 못하지 않는다고 물으시었다. 그의 말씀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곳 작업반에서 제일 애를 먹고있는 문제가 바로 물 문제였던것이다. 이 작업반은 다른 작업반보다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있었다보니 옆에 저수지를 두고도 그 덕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실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 작업반이 좁 높은 지대에 있기때문에 저수지를 가까이 두고도 그 덕을 보지 못하고있는데 산성사면을 따라 물길을 내고 저수지를 양수하고 퍼올려 물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그 방도도 친히 밝히 주시었다. 계속 하여 여기에서는 끌모래같은것을 만들어 놓고 그 물을 리용하여 비탈밭에 판수로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면에 부식도를 많이 내고 판수도 하면 강병이수확고를 지금보다 더 늘일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물길을 내고 양수기를 돌려 저수지를 리용하는 문제며 골포를 만들어

보조수원시설을 해결하는 문제, 비탈밭에 판수로를 세우는 문제 등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었다.
오즘 작업반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하여도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해농사 준비는 긴장한 사업이기때문에 작업반의 모든 력량을 농사치비에 집중시켜 착실히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어느덧 어지간히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작업반마을에 살림집도 새로 건설하고 강병이차지도 지도록 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앞으로 주체농부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었다.
은 나라의 중대사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범한 농장의 작업반농사일에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위대한 장군의 승고한 뜻을 품고 마음을 다 바쳐 기여 빛나는 현실로 펼쳐 맹세하 그들의 가슴마다에 불타올랐다.
이것이 어이 어느 한 농장의 작업반에 깃든 이야기라고만 하겠는가.
은 나라의 농장별마다에 력력한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현신의 자욱은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뜻깊은 율예를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어 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인 선

두드린다.
우리의것이 창조는 이 땅의 넓이고 번영으로 향한 불타는 지향이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무한한 힘의 분출로 되고있다. 이 부름과 함께 가는 곳마다에 조신의 문명을 펼쳐는 황홀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첨단제품들이 앞을 다투어 태어나고있다. 약동하는 시대의 승결과 이 땅을 뒤흔고 내달리는 조국의 빛깔들도 이것으로 색색하며 우리 당이 설계하는 눈부신 미래도 바로 이것으로 가득차있다.
우리의것, 이 부름과 함께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력사가 울려 퍼진다.

누구보다 이 땅의 번영을 바라신분, 누구보다 인민의 행복을 바라신분이여서 그의 심정에서는 언제나 우리의것, 이 부름이 뜨겁게 고동했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하나의 구두, 하나의 벽지를 보시여도 그것이 우리의것인가부터 먼저 물어주시고 철을 만들어 주체철을 만들고 모독하고 어떻게 하나 우리료를 생산해야 한다고 그처럼 간곡히 교시하시던 우리 장군님,
그이의 눈물겨운 천만로가 깃든 우리식 CNC,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종이야 사연같이 쓰시었던 《내 나라》의 글씨가 지는 이야기고 그것이었고 그의 심정에서 솟아난 애국의 불길 《자기 땅에 밭을 틀어주고 높은 세계를 보라!》가 새겨준 진리도 바로 그것이였다.
우리의것, 그 애국의 불덩이를 내 조국 땅 위에 더 높이 안아올리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펼쳐주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조가 우리 가슴 뜨겁다.

자기의것에 대한 경모가 공기처럼 차오르고 훌륭한 우리의것이 날아나 자리를 넓히는 이 땅의 날과 달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적용을 전하는 불멸의 위인실록이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구가한 지난 3년간의 공지들은 년력을 번쳐보아도 좋고 남의것을 밀어내며 더 많은 우리의것을 팽팡 생산하는 자랑많은 일터들의 구레끼를 걸어보아도 좋았다.

그이께서 제일 기뻐하신 때는 우리 힘으로 세계적인것을 압도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였다.
우리의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남의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 좋은 우리의것을 창조하자. ...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향하시는 일터마다에서 그이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시어 이렇게 간곡히 깨우쳐주시었다.

비오는 날 현란한 장막을 앞장에서 걸으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까지 그 수많은 형성안들을 한창장군 보아주시며 세계적진전을 압도하는 조선의기만 파편 어떤것인가를 눈부시게 솟는 건축물에 담아 펼쳐주시념, 가법고 멋진 신발을 신고 기뻐한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손수 자물에서 그무까지 달아보시느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눈을 띄워주고 눈을 폭발시켜 하루빨리 이 땅을 세계적인 우리의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그이께서 기울으신 남도없는 신화와 로고, 바쳐오신 눈물겨운 헌신을 무엇으로 다 전할수 있었는가.
정녕 시대를 전감하며 날아나 늘어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든것은 우리 힘으로의 불타는 애국의 심장에 뿌리를 둔 한없이 성스러운 열매들이며 그이의 승고한 리상과 꿈이 쌓아올린 시대의 기뵈비들이다.

그이의 손길을 따라 이 땅에 천지개혁이 일어나고있다. 인민들의 창조적 높이가 달라지고 전제없이 양양된 조신의 투쟁만매와 기개가 하늘을 찌른다. 이미 자기의 신비하고 경이적인 자태로 세계앞에 당당히 나선 건설의 대번영에 이어 인민생활향상의 포성을 울리며 우리의 수산과 경공업이 용을 씹어 일떠서고있다. 그결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건설의 나라라는 《조국찬가》의 구절구절을 심장앞에 부르시는 우리 원수님의 애국의 세계속에 우리의 더 밝은 미래가 소리처럼 달려오고있다.
우리의것으로 세계를 딛고 오르라!
위대한 조신의것으로 지구를 뒤흔들자! 바로 이것이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의 리상이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꿈이다.

새로운 대조선《추가제제》를 요란스럽게 떠들며 새해벽두의 문을 연 적대세력들은 번영의 꿈을 안은 조신의 봄을 광란적인 전제연습으로 모독하고 어떻게 하나 우리를 압살하려는 저들의 본심을 또다시 드러내 놓았다.
원수들이 끈질기게 추구하는 침략책동, 악랄한 봉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가장 소중한 우리의것을 빼앗고 우리가 자기 힘으로 세계를 향해 솟아오르는 것을 막아보려는 데 있다. 무관심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앞에 저들의 힘의 전력을 포기할수밖에 없게 된 원수들은 끊임없는 위협과 제재로써 우리의 번영을 한사코 가로막으려 하고있다.

우리의것 창조는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기발을 쫓아야 할 또 하나의 전략적고지이다. 오늘날 전제연습은 여기서 벌어지고있다. 누가 누구를 하는 이 전제미문의 전쟁에서 우리가 창조하는 하나하나의 재부는 원수들의 악랄한 봉쇄를 짓부시고 조국을 수호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적대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땅을 목숨바쳐 수호하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여야 했다. 그러나 조국사수는 총포탄이 울부짖는 전장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은 그어 못지 않은 또 하나의 조국방위전이며 영토수호전이다.

적대세력들이 조신의 맥주를 하나 보고도 그토록 놀라며 앞을 다투어 보내는 리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우수한 제품들은 그것이 비록 지금은 없어도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저들의 포위망에 맞구멍을 내는 위력한 폭탄과 같은것이다. 은 나라의 모든 일터들이 만물생의 무기를 생산하는 모든의 공리자 가 될 때 봉쇄의 울라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최후승리의 날은 앞당겨지게 된다.

조선사람의 불굴의 자존심으로 우리의것, 조선의것을 더 많이 창조하자.
언제 한번 췌언것은 인민의 정신, 죽을지언정 비굴해본적 없는 조선사람의 자존심이다. 민족의 존엄을 지켜 국제회의의 장에서 배를 가지고 마라톤우승자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휘하였던 피절은 존엄에서의 력사가 결코 우리 인민의 자존심의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의 자존심은 조선사람을 잘못 보고 덤벼든 침략자의 코대를 보지 못하고 뛰어났고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는 원수들의 떠벌이에 천리마의 비약으로 대담하였으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로 굶어 쓰러지면서도 붉은기를 지키고 강성번영의 대풍로를 열었다.
세계 조선의 류행을 뜨르게 하라. ...
지난 1월 류원신발공장에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뜻깊은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이 어떤 높이에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었다.
류행은 우월한것에 대한 막을수 없는 지향이며 지어낼수 없는 공정한 평가이다. 조신의 창조물을 세계가 부러워하게 하고 조신의 류행을 따르는것이 인류의 희망으로 되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배짱이고 자존심이다. 우리는 가장 선진적이고 발전된 자기의 창조물로도 목숨보다 귀중한 조신의 자존심을 말해야 한다.
이 나라 지역의 정수리에 백두산이 높이 솟아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맨두막밖에 없는 천고밀림에서 쇠스레나무로 나무포를 만들고 자체로 제조한 화약으로 연결폭탄을 만들던 항일선렬들의 후손들이, 백두의 정기는 넘치고 우리 손으로 새 사회 푸른다는 노래와 함께 전설속의 천리마를 이 땅 위에 불러온 대조선구주자들의 아들딸들이 과연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있던 말인가. 끈질긴 봉쇄속에서도 위성이 하늘을 날게 하고 철강장이 바다로 나가게 하였으며 핵탄대로 은 지구를 감싸시킨 우리 세대가 과연 세계를 압도하는 조신의 인기상품을 내놓지 못하란 말인가.

우리는 이 하늘아래, 이 땅에 거기어 부강하고 문명한 인민의 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는 민족자존의 정신, 주체사상만이 높이 솟아 빛을 뿌리는 존엄높은 조국을 기어 이 현제일강국으로 빛내여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자랑스러운 우리의것을 더 높이, 더 빛나게 쌓아올려야 한다.
얼마전 한 나라의 인터넷신문은 우리나라의 천연물제품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명도자의 뜻을 말하며 다른 나라들이 다 인조흑연공업을 해도 자기 나라의 무진장한 천연흑연에 기초한 공업을 일떠세우는 길을 택하였다. 조선은 이 분야에 천연흑연가공기술을 가지고 진출함으로써 당당히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오늘 첨단에서 당당히 나가는 우리 나라 천연흑연가공기술의 성과는 우리 세대가 무엇을 틀어쥐고 세상을 누래우는 기적울 창조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있다.

과학기술!
조선의 자존심을 온 누리에 펼치고 눈부신 우리의것으로 세계를 딛고 오르는 위력한 힘도, 최선의 방도도 여기에 있다. 인민이 바라고 세계가 부러워할 최첨단것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비약할에 있어서 이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우리의것이란 정녕 어떤것인가. 그것은 세계를 확고히 앞선 것, 세계를 당당히 딛고 오를것이다.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현시대에는 창조적 자각이나 불리는 열정만으로 우리의것을 만들어낼수 없다. 제재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생산할수 있으며 만지만으로 어떻게 CNC 기계를 만들수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의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곧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사람만이 조국의 번영을 위해 세대의 의무를 다할수 있다.
과학기술을 목숨처럼 틀어쥐라! 최첨단을 돌파한 우리의 CNC가 박력있는 노래로 심장을 울린 진리도 이것이고 시대의 전철에서 나아가고있는 전철단위들이 말해주는 비약의 비결도 바로 이것이다.
멈춰서던 위행이전이다. 아무리 우순한것도 더 높이 비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것이라고 말할수 없다. 《천리마》터일이나 《불타기》화장품이 이름이 좋아서 오늘날 우리의 증지로 되고있는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한층 혁

한층 혁

무기를 틀어쥐고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힘입어 자기를 따라세웠기에 자랑스러운 조신의 재부로 지금도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평양시버섯공장이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던가. 그러나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이 공장을 찾으시어서도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만만한 야심으로 최첨단을 돌파하려는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시었다. 그의 목표가 얼마나 원대하고 그이께서 바라시는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며 그이의 창조적 세계가 얼마나 무한광대한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절대로 담보나 만족이 있을수 없다.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것들, 세계에서 제일 앞섰다는 기술은 다 따라야서 혁명에 필요한것, 인민에게 복을 주는 우리의것을 팽팡 만들어내야 한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있는것은 더 훌륭하게 발전시키고 있는것은 기어이 창조해내며 이 땅의 모든것이 세계적인수준을 압도할 때까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시켜나가자.
조국은 결사의 창조정신을 지닌 애국자들이 버르고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앞서나가기 위해 피라게 노력하였는 이 세계에서 모든것이 풍족하고 조건이 좋아도 성취하기 어려운것이 바로 우리의것의 창조이다. 하물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봉쇄속에서 누구나 달성하고싶어하는 최고의 목표를 단숨에 실현하라면 보통의 각오, 평범한 실천으로는 어렵고 없다.
남의것을 쳐다보는것은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수입에 모든것을 의탁하는것은 스스로 족쇄를 차고 적들에게 투항하는 길이며 눈을 편히 뜨고 망국노가 되는 길이다. 수입만능주의가 혁명의 독버섯이라면 거기에 물젖어있는 사람은 침략자들을 신장한 조국땅에 서슴없이 끌어들이는 애국노와 같다.

우리의 병사들을 보라. 그들은 당에서 현대적인 기술을 일떠세우라고 하면 전문군사들도 놀라움과 탄복을 금치 못하는 최상급의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무엇을 하나 내놓아도 가장 훌륭하고 손색이 없는 우리식의것, 조선의것을 적색 만들어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풍성한 원료나 좋은 조건이 무엇이나 아니라 어떻게 하나 우리의것을 기어이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자존심과 결사의 투쟁정신이 중요하다는것이다.
우리의것이 남만 못하면 금치 못하는 것 못 들며 또다시 일손을 잠는 사람, 자기의 한성이 모자라던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앞선 열매를 어머니조국에 드릴 각오를 지닌 사람들이 창조물이 휘날리는 우리 조국의 세한 필적임에 승결을 더해줄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을 물고 자란 조신의 아들딸들, 모두가 우리의것을 끝없이 사랑하고 우리의것을 끝없이 창조하여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나라, 백두산대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자.
헤르츠 나라 조선에 또다시 부흥의 새 시대가 열렸다.
사랑하라, 우리의것을!
창조하라, 우리의것을!

한층 혁

한층 혁

물소 농사일터 이쁜애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현명생 인민을 위한 념원을 안으시고 은 나라의 포전길을 걷고 걸으시며 농사를 잘 짓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 허맑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협동농장의 작업반농사일도 친히 의논해주시는 이야기도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스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어느해 정월의 일요일이었다.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느 한 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작업반의 농사일도 친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곳 작업반장에게 그것의 작업반알곡 생산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그리고서 농사를 잘하여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나라가 부강해질수 있고 인민생활이 향상될수 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농법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업반부식도

생산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부식도생산이 다른 작업반보다 뛰어난 장래라는것을 로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식도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고 주체농부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으면 알곡생산은 지금보다 더 늘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부식도 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이어 주변의 논밭들과 저수지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업반장에게 작업반에서 저수지를 옆에 두고 고고 신세를 지지 못하지 않는다고 물으시었다. 그의 말씀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곳 작업반에서 제일 애를 먹고있는 문제가 바로 물 문제였던것이다. 이 작업반은 다른 작업반보다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있었다보니 옆에 저수지를 두고도 그 덕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실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 작업반이 좁 높은 지대에 있기때문에 저수지를 가까이 두고도 그 덕을 보지 못하고있는데 산성사면을 따라 물길을 내고 저수지를 양수하고 퍼올려 물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그 방도도 친히 밝히 주시었다. 계속 하여 여기에서는 끌모래같은것을 만들어 놓고 그 물을 리용하여 비탈밭에 판수로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면에 부식도를 많이 내고 판수도 하면 강병이수확고를 지금보다 더 늘일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물길을 내고 양수기를 돌려 저수지를 리용하는 문제며 골포를 만들어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 주 체 사 상 탐 에서 -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슬러지의 제거와 맑은 미물에 대한 신심드높이 뜻깊은 이해의 하루하루를 투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이 땅 어디에서나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터번지고있다.
그런데 내리, 내 조국의 꽃 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가슴에 품어안고 머는 피로 뜨겁게 덥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가슴젖어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

로산군 백화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육적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 있다.
우선 주별, 월별, 분기별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인 세우고 당세포와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강연회, 해설모임, 읽은책발표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치고있다.
특히 일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이 실린 당보를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키는것과 열매전에도 들끓고있는 장정에 나간 리당의 일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영도,

혁신했지 않게 해야 한다고, 농사가 잘되었다고 해서 낱알 기한을 모르면 안된다 이가 큰 차근 깨우쳐주시면서 교육을 계속하시었다.
농민들속에서 한알의 낱알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할뿐 아니라 절약하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 다. ...
그이의 가르침을 새겨안은 일꾼들에게 낱알 한알한알의 무게는 천근만근으로 느껴졌다. 일꾼들은 낱알의 무게를 다시금 무게를 알아보다.
낱알의 무게, 정녕 그것은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만이 아닌 이 나라 천만민권이 가슴마다에 스중히 간직해야 할 향심의 무게, 애국의 무게였다.
본사기자 리금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이들처럼 먼 후날까지 책임지는 립장에 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주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둘째 해를 맞아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평양시려단 전투원들이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이들의 불타는 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방대한 땅에 달하는 언덕과 발전기설기구물건설, 물고기길과 방수로공사, 강바닥정리공작이 성과적으로 끝났으며 운영건물 및 중압발전기물건설 등 보조대상들도 완성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특히 발전기실청정기중기와 연체수문발전기중기설치를 손색없이 진행한데 기초하여 발전기본체조립과제들이 모두 훌륭히 수행되었으며 연체수문의 설치작업도 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발전소건설의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운영까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념과 립장에서 모든 공사과제들을 철저히 과학기술요구에 맞게 수행해가고 있는 이들의 주인다운 일본새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때때 수문을 설치하던 때를 실례들어보자.

여러가지 방안중에서 이왕

평양시려단 일꾼들의 사업에서

수문이 3개의 부분품으로 나누어 제작 및 수송된 조건에서 부분품별로 차례차례 들어올려 조립설치하지는 안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 전양기중기와 수문의 무게가 합쳐져 레우와 다리보에 최대의 짐이 실리는 현상이 없어져서 그중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제기되는 안들을 놓고 백종원, 최홍수, 안성일동무를 비롯한 리단지휘관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물론 그렇게 하면 현재는 수문설치작업을 안전하게 할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발전소가 조립될 때 다리보안장설비를 확고히 담보할수 없지 않겠는가.

발전소건설의 오늘뿐만 아니라 그 운영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건설자의 참된 량심이라는 확고한 립장에 선 이들은 육중한 수문들을 지상확대식으로 조립하고 통째로 들어올려 운반설치할 용이한 방안을 세웠다. 대담한 결심이었지만 실현은 결코 쉽지 않았다.

리단에서는 현장지휘부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전양기중기와 함께 기중기차를 효과적

으로 리용하여 지상에서 수문을 들어올릴 때의 중심보장과 전양능력문제를 해결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내양 및 운반과정에 쇠바늘이 탈리는 현상을 미리 방지하고 성능높은 축적기중기와 기중기들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두물기 레우의 전반적인 수평보장과 다리보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리단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체 전구간에서 전양기중기가 수문을 쓴 상태로 왕복주행을 여러차례 하도록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사업에서

제때에 완벽하게 대책을 세움으로써 연체의 안전성을 보다 확고히 담보하고 수문설치작업의 질과 속도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곳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지닌 높은 책임성과 끈진 일본새는 발전설비들의 마감고정작업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필요한 온도보장을 위해 이들은 긴긴밤에도 발전기실을 떠나지 않고 헌신의 땀방울을 목욕히 바치였으며 주요부분에 대한 콩크리트시기를 비롯하여 모든 기술적과제들을 철저히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수행

하였다. 하여 이들은 해당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령계 밑에 발전설비들의 마감고정과제를 모두 높은 수준에서 손색없이 완수하고 진동요차를 현상출입수 있게 하였다.

발전소건설의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운영의 매일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념과 립장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앞에 자기들의 창조물을 멋있게 내놓기 위하여 공사장마다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평양시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이들의 참된 량심과 주인다운 일본새는 참으로 본받을만 한 것이다.



조국땅 한끝까지 달려간 사연

지난 2월 26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는 현장지휘부일꾼들과 각 단위리단장, 정치일꾼, 참모장들이 머나먼 조국땅 한끝에 자리잡고있는 만포연하발전소에 대한 참관편에 오르는 광경이 펼쳐졌다. 현장지휘부 정치일꾼에서는 이미 마감공사로 장식을 할기 위하여 연초부터 진행된 각 리단들의 보여주기사업에는 물론 지

공세, 립지를 립진한 결심

지난 3월초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중요한 대상설비중의 하나인 수문연양기중기생산을 맡은 서해지구의 한 기업소정문앞에서는 그곳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룬 속에 경제선동공원이 진행되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각 리단 정치일꾼들과 평안북도리단 기공예술선동대원들이 출현하는데 지난 1월 중순 함흥지구 대상설비생산기지에 펼쳐졌던

동해지구에서

공연무대를 립상시키었다. 청천강용수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전투적기백이 넘쳐흐르는 공연은 관람자들을 격동시켰다. 특히 공연마감에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평양시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 정치일꾼들이 터치는 격정넘치는 호소와 노래 《열거림》의 합창에 이어 기업소일꾼들이 다진 불같은 결의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지금 발전소건설장마다에

서해지구에서

서해지구기중기조립이 기본적으로 끝나고 능력이 큰 수문연양기중기들이 예상외로 빨리 도착하여 마감대상인 연체수문설치공사들을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난해 2차에 걸쳐 수백만의 파월을 수집해가지고 달려와 증산투쟁을 고부해준데 이어 올해에도 펼쳐지는 청천강용수들의 공세적인 작전의 웅대한 결심이라고 할수 있다.

류다른 장거리집중수송전

얼마전 류다른 장거리집중수송전이 벌어져 청천강전역을 들쭉날쭉하게 하였다. 이 수송전투는 위대한 대원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발전소건설에서 집단적업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청천강용수들의 투쟁열의를 더해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결코 로력이 문제가 아니었다

남포시려단에서

최근 12호발전소 연체건설을 맡은 남포시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미진되었던 8개의 수문기중공사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방대한 량의 물결돌리기과제를 붙이 번쩍 나게 해준데 이어 수심개에 달하는 다리보제작과 설치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다른 단위들에 비해 로력이 결핍정도에박에 안되는 불리한 속에서도 이러한 현신은 창조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자기 부름, 자기 단위의 사업을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때때로,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이것 일꾼들의 작전에서 주목되는것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구조물건설을 질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목표를 대담하게 내세우고 로력조절을 기동성있게

한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수문기중공사이다. 매향 날씨가 지속되고 로력적은 조건에서 최명호, 강성남, 손동길동무를 비롯한 리단지휘관들은 일정계획을 치차처럼 맞물리도록 세심하게 짰다. 골재생산과 운반, 세멘트수송과 하차, 혼합설비 및 보온소재보장과 설치 등 작업과제별로 로력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공사실정에 맞게 설비전과 립체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갔다.

내부배치가 적극 탐구동원되는 속에 공사장마다에 보온대책들이 신속하게 세워지고 혼합물을 가열하면서 수문기중 및 다리보에 대한 타임작업과제를 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립체전이 벌어졌다. 특히 수문기중의 정점들에 일제히 보온장치가 설치되어 콘크리트시기가 좋기까지 진행되었다. 지휘관들은 수문기중공리기중기와 다리보제에 필요한 골재생산과 운반이 끝나는 차례로 기중기의 기동로를 개척하기 위한 물결돌리

기중투에 로력과 설비를 집중하여 설비전을 들이대었다. 이어 리단에서는 마감단계에 이른 수문기중공리기중기를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면서 기중공력량을 동원하여 이미 완성된 수문기중구간들에서 기중기에 의한 다리보설치공사를 동시에 본래 하에 내밀었다.

하여 높이 내세운 공사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였으며 3월에도 설비전과 립체전을 기동성있게 벌림으로써 올해 태양결까지 기본구조물건설을 끝낼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절친한 대담한 해당 설비제작단위가 설치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제작단위가 와서 설치해주시는 기중기다리가 든 전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발전소건설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리단지휘의 힘으로 해배자, 하루빨리 발전소를 완공하여 우리 당에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 이렇게 결심한 리단일꾼들은 즉시 기술자, 기능공들의 회를 열었다. 긴장한 시간이 흐르는 속에 설계를 놓고 토의가 벌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스런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야 합니다.》

최근8호발전소건설장에서 3월초 수문연양기중기조립과제 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중량이 수십이나 되는 10여개의 수문을 설치하여 전기생산을 위한 물잡이를 하려면 수문연양기중기를 빠른 시일에 조립해야 했다. 수문연양기중기조립 속도는 발전소완공의 관건적고리라고 할수 있었다. 그런데도 절친한 대담한 해당 설비제작단위가 설치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제작단위가 와서 설치해주시는 기중기다리가 든 전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발전소건설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리단지휘의 힘으로 해배자, 하루빨리 발전소를 완공하여 우리 당에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 이렇게 결심한 리단일꾼들은 즉시 기술자, 기능공들의 회를 열었다. 긴장한 시간이 흐르는 속에 설계를 놓고 토의가 벌어

열흘간의 낮과 밤

평안남도리단에서

졌다. 수력설비조립사업소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짧은 기간에 조립을 끝내기 위한 공작간 맞춤형작업이 선행되었다. 로력조절과 작업분담도 구체적으로 따랐다.

전투가 벌어졌다. 누구나 맡겨진 과제를 제정된 날짜에 수행하기 위해 긴장한 분초를 이어갔다. 조건이 어려우수록 양덕군 대대대장 리성철, 참모장 강천식동무들과 기능공들인 문진혁, 정현철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보다 새롭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창안도입하면서 조립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갔다.

조립이 한창 진행되어 설적이 오르고있던 어느날 수문연양기중기 옷보부분품수송이 지연될정황이 조성되었다. 그 중량이 10여이나 되는것으로 하여 룩로로는 수송이 거러나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기차로 수송하자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많은 기일이 걸려야 했다. 일본철도가 귀중한 때 할말이라는것은 말도 되

지 않았다. 불가능이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무조건 수송해야 한다. 리단정치부장 리중동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결사의 각오를 안고 현지로 달려갔다. 그곳로 동행공파의 긴밀한 협조밑에 무려 8시간동안이나 간고한 전투를 벌려 10여이나 되는 부분품을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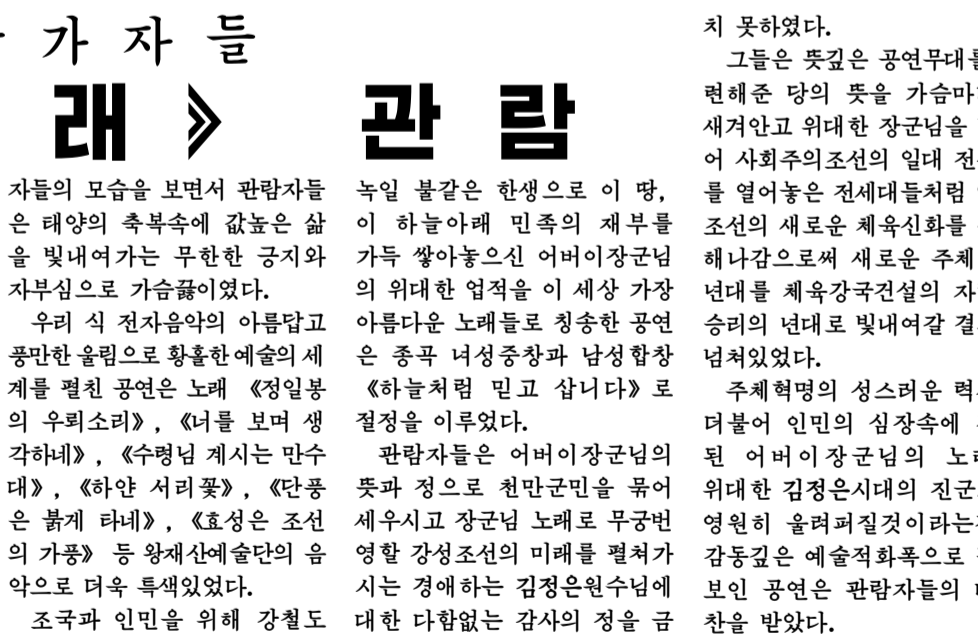
수문기중기 조립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는 이

렇게 열렸다. 리단일꾼들의 일본새에 고무된 전투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많은 시일이 걸려야 한다던 수문연양기중기조립을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기적창조의 열흘간은 무엇을 전해주고있는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혈전만

리를 해쳐 조국방향을 안아온 항일혁명투사들처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이다. 평안남도리단 일꾼들의 대담한 공격정신과 완강한 결심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목표도 비상하고 전진속도 또한 좋다. 지금 이곳 리단일꾼들과 전투원들은 새로운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해당 단위의 현재에 수문조립전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제 7 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 관람

들의 불타는 충정과 열정이 낳은 명곡들을 들으면서 관람자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눈부신 세기적변혁이 창조된 영광의 년대들과 더불어 주체체육의 자랑스러운 발전과정을 아로새겨온 잊지 못할 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그들은 체육발전을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사상과 평도로 주체체육이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시였으며 체육인들을 사랑의 환풍에 안아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체육영웅,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금을 적시었다. 천만군민 모두가 심장을 바쳐 마르고 받들 위인의 송가를 세

기름 이어 부르는 무한한 영광이 차넘치는 무대에 우리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보은보전자악단의 인기가수들이 《사랑의 봄빛》,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저세사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그 품을 못 잊어》, 《강성부흥아 리랑》,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회파란》, 《반갑습니다》를 비롯한 노래들을 안고 출연하자 장내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아버지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출처럼 간직하고는 님을 다하여 수령의 노래, 일편단심 충정의 노래를 부르고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태양의 축복속에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는 무한한 긍지에 자부심으로 가슴끓이였다. 우리 식 전자음악의 아름답고 품만한 울림으로 황홀한예술의 세계를 펼친 공연은 노래 《정일봉의 우뢰소리》, 《너를 보며 생각하네》, 《수령님 계시는 만수대》, 《하얀 서리꽃》, 《만풍은 붉게 타네》, 《효성은 조선의 가풍》 등 황새산예술단의 음악으로 더욱 특색있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강철도

치 못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공연무대를 마련해준 당의 뜻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사회주의조선의 인애 전진기를 열어놓은 전세대들처럼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강국을 창조해나감으로써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체육강국건설의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었다.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진군가로 영원히 울려 퍼질것이라는것을 감동깊은 예술적회복으로 펼쳐 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렬찬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자! (공동구호에서)

결사관철의 한달에 비긴 승리의 한해

참된 삶의 보람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호시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간직한 대안중기계획합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결을결을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뚫고 헤쳐나가는 청천강전역에 보내준 발전설비생산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대외의 앞장에는 대형기계장비 로동계급이 서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이시라면 산악같이 뛰어넘어라. 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라.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지난 3월초 대형기계장비 로동계급앞에는 단 한달동안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보내줄 수력발전 4대를 생산보장하여야 할 과업이 내렸다.

지난 시기 수력발전 1대를 생산하는데 두달이상 걸렸다고 볼 때 그것은 아름다운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직장일군들과

대안중기계획합업소 대형기계장비 로동계급

중공업들은 유능한 대형기계들이 줄지어 늘어선 작업현장에 모여있었다.

직장장이 비친 종업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직장장 김석동무의 심정은 착잡했다.

(대형기계들의 설비가공능력은 제한되어있는데 맡겨진 생산과제를 수행할 방도는 어디에 있겠는가.)

김석동무가 이런 무거운 생각을 잠겨있는데 이때 4m타란만 기계공 총장식동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서더니 손에 든 도면을 펼쳐놓는것이였다.

《직장장님, 제가 밤새껏 생각해본것인데 이렇게 지구장비를 새로 도입하면 수력발전의 작업날개 동체구멍 가공기일을 절반으로 단축할것 같습니다.》

직장장만이 아닌 모두의 눈길이 자그마한 도면에 쏠렸다. 얼핏 보기에도 기발한 착상이 엮여있었다. 그 도면에서 땅이 떨어져서 공을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직장장 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을 읽고난 김석동무는 배심이 든듯했다.

방도는 이렇듯 대중의 심장에 이윽고 다정한 얼굴들을 믿음

정황속에서 가공하기 힘든 작업날개구멍가공을 맡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는 12m분형후라이스반 대공장장동무며 청정기공기의 바퀴가 달린 수리작업이 제기되었을 때 새벽시간에 긴장한 전두를 벌려 기공정상가동을 하도록 종단업이 보장한 보조작업반장 김철준, 보수공 박영준동무들을 비롯하여 직장종업원들 누구나 이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발전설비생산전투에 떨쳐나섰었다.

이런 투쟁의 나날속에 직장장에 맡겨진 바쁜 발전설비제작전투는 훌륭히 결속되었다.

결사관철의 한달은 이렇게 흘러갔다.

늘높은 발전설비들을 발전소들에 더 좋게, 더 많이 만들어 보내주는것은 대안로동계급에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합쳐가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는데서 생의 희열과 광명을 찾는 직장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안아온 자랑찬 한달, 바로 그 한달속에 이들이 걸어갈 승리의 한해가 비껴있는 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리명남

◇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속에는 조국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 삶의 자욱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한생을 도로판리에 바치는 선천군 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강동명동무와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도 있으며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려온 풍성기계련합기업소 풍성기계설계연구소 압축기설계실 실장 라금철동무와 같은 지식인들도 있다.

지난 10여년간 100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장그러 바친은 구성시약수료양소 로동자 구분길동무는 우리와 만년 자리에서 기거해 말하였다.

《나에게는 푸른 숲을 이루는것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은 없습니다.》

인생의 보람, 그것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할수 있는 값높은 삶의 가치이다.

◇ 참된 삶의 보람은 당과 수령님 기쁨을 드리고 조국과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의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은 많은 일을 잘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민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쁨을 드린 금급제육인 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들이 받아들인 영광과 행복은 얼마나 큰 것인가.

지난 1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급제육인 종합식료공장은 당정책관철에 앞장선 공장, 자력갱생하는 공장, 인민들이 좋아하는 공장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공작일군들과 종업원들을 한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업사건도 찍으셨다.

너무도 뜻밖의 영광에, 너무도 큰 기쁨에 울고웃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겼던 금급제육인종합식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이런 영광과 행복속에 인생의 값높은 보람이 있었으리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금급제육인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처럼, 전체적으로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처럼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해나간다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고 조국과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 조국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를 드린 단위들을 보면 배의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성과를 거둔 단위들이다.

누구나 자기 부분,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에 정통하며 하나로 빠짐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삶의 요구로, 더없는 공지와 영예로 여기고 모든 사색과 실연을 유혹받지않고 지향시킴이 열매를 맺어주도록 기어오르는 결사관철의 기쁨을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장그러 바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워야 한다.



누구나 따르는 분조장

전천군 읍내면전농협 동농장 분조장 공희복 동무는 제배배를 험뎠는데 돌이켜보면 때로부터 오늘까지 30여년동안 알곡생산에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오고있다.

20여년전 착박하고 비탈진 포진들이 많은 분조의 분조장으로 사업하게 된 그는 땅따발을 물랐다. 그는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고려형순환 생산체제를 확립하여야

새로운 일감도, 더 높은 목표도

함흥남해전농협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온실남해농사에서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내밀고있다.

새로운 일감이고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에 비해 더 높은 목표이다. 이들이 새 일감, 더 높은 목표를 찾고 일감을 벌리기 시작한것은 얼마전부터이다.

본사기자 리명남

로작과 당론학습을 잘하도 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유훈이었다.

혁명과 건설의 대강이며 그 어떤 곤난도 뚫고나갈 자력갱생의 목표이 밝혀져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들과 유훈을 자자구구 학습할수록 당정책의 요구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신심이 생겼다.

지배인 주복순동무를 비롯 한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달하면서 그들의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어나다며 원료원천을 확보해 나갔다.

오늘도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틀어쥐고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난관을 뚫고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지배인의 새 결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공장에 창조와 혁신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던 지난 2월 어느날 평양양광공작지 배인 리승희동무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소식이 실린 당보를 받아안았다. 충격이 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의 사상은 혁명적언어나 맹세보다 실천과 결과에서 나타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의 구절 구절을 읽어들일수록 생각이 깊어졌다.

선군혁명명도의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공장에 찾아오시여 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된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집집승기기를 본때있게 벌리기 시작하였었다. 질 좋은 거름생산 을 다그치며 도시거름 생산도 적극 따라세웠다. 특히 그는 5마리나 되는 부립소들을 맡아 비탈진 포진들이 많은 분조의 분조장으로 사업하게 된 그는 땅따발을 물랐다. 그는 알곡생산 을 늘이자면 고려형순환 생산체제를 확립하여야

였다. 리승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세면 트, 용접봉 등 제기되는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해 뒤고 또 뒤고했다. 일군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이신작업의 모범은 대중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성과를 눈으로 띄게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 깊고 새기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물연화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제기일에 끝낼수 있는 전방이 열리게 되었다.

리승희동무는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양말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완강하게 실천하고 있다.

본사기자 현경철

엔제나 혁명의 교과서를 펼쳐며

제앞에 모두가 당황해할 때 지배인 주복순동무의 머리속에서 떠오른것은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속을 헤쳐가 공장에 찾아오신 지배인공작님께서 여럿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엔제나 만포방사공장은 예에서 못했던 난관이 조성되었다. 뜻밖의 사정으로 만포방과 주변공장에서 수배돼오던 양철의 량이 줄어들었던것이다.

원료부족이라는 심각한 문

신심과 락관에 넘쳐

몇해전까지만 해도 대충단 감자기공공장에서 생산되는 분량은 다른 분량들에 비해 맛은 좋았지만 분량오르듯이 짧고 구불구불하게 불맛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흠이라고 생각한 단원은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분량장자에 걸고 뻗뻗한 분량을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꾸리며 여기까지 굼기기와 형태의 분량들을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단 한점의 자그마한 손색도 없는 감자공공장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지배인공작님의 뜨거운 인민 사랑의 높은 뜻에 고무된 지배인 박국필, 기공부원 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닥치는

승철진

박근혜패당이 《천안》호침몰사건을 동족대결에 악용해 델수록 숨쉬는 산송장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박근혜패당은 그 모략적정세가 만천하에 드러난 오늘에 와서도 《천안》호침몰사건 5년을 계기로 남조선전역에 반공위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데 피논이 되어 날로 뛰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9일 조선인민신문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지난 23일 《천안》호침몰사건과 그에 따른 《5.24조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내외에 밝히었다.

이것은 국약무도한 동족대결쟁으로 락인된 리명박일당이 조작성 특대형모략으로 하여 오늘날 동족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북남관계의 불미스러운 현 상황을 바로잡아보려는 의도에서였다.

박근혜패당이 조공이라도 북남대화 에 관심이 있고 관계개선의지가 있었다면은 그에게 소원하는 북남대화와 접촉,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가르치는 차단책으로, 동족대결의 악로로 되고있는 《천안》호침몰사건과 《5.24조치》와 단호히 결별하는 정책적립단을 내려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우리의 대법한 동포애적호소에 호응해나오기는커녕 보 다 무모한 동족대결소동에 광분하는것으로 드러내나섰다.

20일에는 대전 《현충원》에서 그 무슨 《천안》호사건 《추모식》이라는것을 벌려 놓고 박근혜가 직접 《추모사》를 통해 용납 못할 악당질을 또다시 해했다.

박근혜는 《천안》호가 《그 누구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피격》되었다고 주장 거리며 우리들러 《무모한 도발은 포기》하는 식으로 《천안》호침몰사건의 《복소행》을 기정사실화해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놓았다.

나중에는 《해무기가 자신을 지켜줄수 없다》면서 케케묵은 《북핵포기나발을 불어대고 《고립》과 《정체》, 《전정환 변화》를 운운해왔으며 우리의 정정당당한 정책과 체제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 불망종도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의 이러한 대결광기는 피괴국방부와 통일부의 수하종개들에게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피괴국방부는 《천안》호침몰이 북소행 임은 이미 국제공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생역지를 부러뜨리고 《사실외곡》이, 《책임있는 조치》니 하며 《5.24조치》의 지극적인 유지를 필요를 공언해나섰다.

피괴국방부 장관들은 《천안》호침몰사건발생 5년을 계기로 피괴국합동본부 지휘체제에 불신이 나타나 《군사대비태세정전》과 《적의 도발을 제압할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에 대하여 떠들어대며 허세를 부렸으며 피괴국후조정당들은 서해해상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북방한계선》고수와 《도발적행위》를 구실로 대규 모해상기동훈련을 련일 벌려놓았다.

우리의 무지비한 물리적정변통교에 겁을 먹고 사지가 줄어들어 《삼포종단》을 발표했던 인간쓰레기들이 《표현의 자유》는 건드릴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피괴국공작의 적국적인 비호두문에 배라살포를 다시 강행해보려고 악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천안》호침몰사건발생을 계기로 늘어 대는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그러나 박근혜의 악착한 《복소행》이와 《유신독재》가 그처럼 살벌한 속에서도 《천안》호침몰이 《복소행》이라는 발표를 믿을수 없다는 남조선관계의 주장이 침몰사건 5년이 되는 오늘에도 피괴국들의 날조론거를 압도하고있다.

현실은 이 땅에서 대화가 아닌 대결을 추구하고 평화가 아닌 전쟁에 매달리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의 대화타령은 내의를 기만하고 우롱하기 위한 서론짜리 위선에 불과하다.

대결광기에 들떠있는 박근혜와 그 패당이 집권하고있는 한 북남관계의 개선에 대해 더는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

악질 동족대결광정자들과는 절대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립장은 불변이다.

박근혜패당은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의 《복소행》결과 그에 따른 《5.24조치》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민족의 지주와 규탄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 역사의 구렁덩리에 처박힌 리명박악도처럼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은 거레로부터 제2의 리명박역도무리로, 숨쉬는 산송장무리로 취급당하였는 가 말했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박근혜와 그 패당에게 달려있다.

하마 도와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땅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나라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결혼식날에는 온 인민반들과 동사무장, 동초급당비서가 팔을 걷고 자기 집일처럼 기뻐하며 도와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땅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나라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신인주시 남민동 32인민반 백운건

저는 영애공민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 이번엔 아들결혼식을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풍모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26일 아들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그 전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독자의 편지

피천군에 살고있는 신부를 어떻게 데려오라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 다. 이때 남민동 38인민반 반장 김성욱동무가 그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 아니었습니 다.

어제 그분이었습니다. 영애공민이 쌍둥이형제로 한 날한시에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화목한 대가정에서 우리 삽니다

사실을 알게 된 김성욱동무와 당세포비서, 남민동사무소의 일꾼들은 제 자식들의 새살림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결혼식날에는 온 인민반들과 동사무장, 동초급당비서가 팔을 걷고 자기 집일처럼 기뻐하며 도와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땅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나라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신인주시 남민동 32인민반 백운건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황해북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식수결에 이어 지금까지 4 700여정보의 면적에 2천 5백만여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당위원회와 지도부에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봄철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심을 준비를 예견성있게 해왔다. 시, 군들에 꾸러진 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국도부부와 도시원림부 일군들이 불철나무심기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들에 시 말은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받들며 야구체 교조직사업을 짜고 들었다.

식수결을 맞으며 도안의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 농업근로자, 청년학생들이 많은 주변산들로 달려나 나무심기를 힘있게 벌렸다. 전투장의 방승선전에서 서둘러는 힘있는 노래소리와 방승선의

매국의 마음안고 정성껏 나무를 심고있다.

—백성군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특대형모략극의 진범인들과 동족대결광신자들은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상전과 주구의 불순한 흥계가 비낀 합작품

《천안》호침몰사건은 인류 력사에 기록된 국회의사당방화 사건, 로구교사건, 마크로만사건과 더불어 없는 최대최악의 모략사건이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조선서해에서는 피뢰해군의 초계함 《천안》호가 불시에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합선은 두동강났으며 46명의 사병들이 생중음을 당했다. 이 사건은 철두철미 리명박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조작해낸 사상 유례없는 특대형모략극이다.

이 사건에는 무엇보다도 국도의 통치위기에 벗어나기 위한 리명박 《정권》의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파쇼초치체제를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최악의 통치위기를 몰아넣기 위한 리명박 《정권》의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이 사건에는 무엇보다도 국도의 통치위기에 벗어나기 위한 리명박 《정권》의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이 사건에는 무엇보다도 국도의 통치위기에 벗어나기 위한 리명박 《정권》의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이로부터 리명박패당은 우리와 편결시킬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안보》문제, 《북의 위협증대》를 적극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정국을 역전시키며 사분오열되어가는 보수정당을 집결시킬 흥계를 꾸미었다. 그 결과로 바로 《천안》호 침몰사건이었다.

리명박패당은 모략극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원인발표-대통령명화-국방부성명》이라는 각본까지 짜놓았다. 그들이 지방자치선거를 위한 공시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천안》호 침몰원인을 《북의 어뢰공격》으로 규정한 조사결과와 《대국민담화》를 려기 위해 발표하겠다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으로 리명박패당은 좁어져가던 명분을 부각시키고 다음날 보수 《정권》출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천안》호 침몰사건은 북한관계를 완전체화상태에 몰아넣고 북한진정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상전과 주구의 합작품이기도 하다.

당시 리명박역도는 《천안》호 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를 근거로 북한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의 일체 중단과 우리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5. 24 조치》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피뢰 국방부, 외교부상부(당시), 통일부의 우두머리들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그 후속조치로서 《대북방송》제개와 북한관계 차단 등 우리에게 대한 극히 도발적인 제재방안들을 발표하였다.

그후에도 피뢰들은 《〈5. 24 조치〉》의 지속적인 리행과 돈과 물자, 사람 등 모든 고려에서 대북압박의 강화》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반공화국대결 책동에 갈수록 기세를 부렸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관계는 완전체화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대결은 최대로 격화되었다.

리명박 《정권》의 출현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전직작전통제권전환연기움직임도 합선침몰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되게 되었다. 역적패당은 《북의 위협》이 확증된 조건에서 전직작전통제권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남조선의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긴다. 이는 궤변을 놓아놓으며 그 연기를 제창해나섰다. 피뢰들의 이런 집요한 책동은 미국의 전략지리해판에 따라 결국 전직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5년도 연기한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것은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을 위한 미국과 피뢰들의 공모결탁의 일층 강화를 의미하였다.

실제로 피뢰패당은 사건이후 그 무슨 《단호한 대응》을 떠벌리며 미제침략군과 서해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인다. 《대북방송》을 재개한다. 유엔 《결의안》을 채택한다.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조선반도사태를 일촉즉발의 초진장상태로 몰아넣었다.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전직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함으로써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강화하고 피뢰보수패당을 저들에게 바싹 끌어당겨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실현의 물격대로 용이하게 써먹을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보수패당은 미국과의 결탁을 강화하면서 상전들을 등에 업고 동족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더욱 광기를 부릴수 있게 되었다. 미국과 공모하여 북한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리명박역적패당이 《천안》호사건을 꾸며낸 중요한 목적이였다.

《천안》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큰 리득을 본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천안》호사건을 《북위협》론을 요란하게 펴고 하여 남조선과 일체를 비롯하여 세계를 단란히 틀어쥐고 대조선압박공세를 확대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당시 국제중간선계를 앞두고 미정권층에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긴장시켜서 저들의 대조선강경정책과 《전략적인 내전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이 필요하였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류예같은 반민적악용 등으로 민심의 심판대에 오른 남조선피뢰들의 모습을 견제하여 합동군사연습을 적극 써먹기 위해서도 모략사건의 조작은 절실한 문제로 나타났다. 당시의 사실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을 집권위기에 빠진 남조선당국과 동북아시아에서 자기의 지배적지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미국에는 그 누구보다도 《천안》호침몰

사건이 필요하였다고 평한것은 우연치 않다.

력사적사실들은 《천안》호 침몰사건이 북한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상전과 주구의 고의이며 계획적인 음모의 산물이라는 것을 날같이 고백하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현 피뢰집권세력은 아직까지도 《천안》호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꾸며내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피뢰패당이 저들만 아는 사실을 누가 알라 하고 시치미를 떼고있는것 같은데 어리석기 그지 없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정의와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천안》호침몰사건의 모략적내막은 이미 날같이 드러났다. 《정치적의도를 가진 유지하고 변변한 사기극》, 《반공화국모략판대극》, 《선거용 《북쪽》 자극극》, 《동족살상책동의 국제화를 노린 남조종》... 이것이 바로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내외여론의 총정이다.

현 피뢰집권세력은 《천안》호사건을 억지로 우리와 편결시키는 과면적인 놀음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천안》호 침몰사건과 그에 따른 《5. 24 조치》에 대한 피뢰패당의 부당한 주장과 고집은 그들자신의 손과 발을 스스로 얽어매는 부정한 후과만을 초래할것이다.

서훈짜리 날조설은 통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천안》호침몰사건 5년을 계기로 다 남아 색까지 바뀐 《북소행》 광고판이 또 다시 등장한 속에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며 반공화국대결기운을 고취하는 일대 광판국이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피뢰통일부당국자와 《새누리당》 대표라하는는 《국제공동조사결과》를 빚대고 《천안》호사건을 《북소행》이라고 우기었는데 하면 《무지비한 도발》이니, 《똑같은 거짓말》이니 하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날뛰었다. 피뢰국방부장관을 비롯한 호전광들은 더욱 기세를 부리고있다. 이자들은 가스통에도 《북의 어뢰공격》과 《책임》 따위를 운운하며 《만민의 대비태세》니, 《단호한 응징》이니 하며 미친듯이 해댔다.

이러한 속에 집권자까지 나서서 사태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26일 《천안》호 5주기 《추모식》에 나타난 그는 우리를 결코 《무모한 도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너털거리면서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더니,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오라느니 하는 덜떠먹은 수작까지 내뱉었다.

피뢰패당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천안》호침몰사건을 다시금 거들며 히스메리컬하게 흥상한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도발이다. 그것이 사건을 한사코 《북소행》으로 몰아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북한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우리를 해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천안》호침몰사건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해 일어났다는 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것인가에 대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입증하였으며 그에 대한 믿음을 여러차례 천명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5년기간은 피뢰패당이 들고 나오는 《북소행》설이 동족을 모욕하고 북한관계를 파괴하며 북침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어설피게 꾸며낸 서훈짜리 날조물이라는 것이 각종 정황자료들에 의해 내외에 널리 공인된 날남이기도 하였다. 《천안》호침몰사건이 야말로 6. 15 통일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가로

막고 북한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꾸며 46명이 달하는 애꿎은 사병들을 제물로 삼은 사상 유례없는 비열한 모략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피뢰들이 한사코 사건을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으로 오도하면서 그 무슨 《책임》에 대해 떠벌이고있는 속심은 무엇인가. 비록 모략의 진상은 드러났다고 해도 내친김에 우격다짐으로 벽도 묻어내고 법다 물어보자는데도 있었지만 기본은 《원칙고수》의 간판에 《5. 24 조치》를 비롯한 반통일정책의 철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도발의 명분을 쌓으며 사건을 동족대결의 주배장으로 계속 써먹겠다는것이다. 북한관계파괴와 전쟁도발에 환장한 나머지 미국과 함께 특대형모략극을 꾸미는것으로도 성취치 않아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건을 반공화국대결에 악용하는 이런 추악한 반역도태는 일찌기 없었다.

현실은 리명박역적패당이 미국상전과 공모결탁하여 《천안》호침몰사건을 직접 조작한 장본인이자 현 피뢰집권세력은 대미추종과 북남대결에 있어서 선인자들도 허를 내두를 극악한 매국역적, 특대형광신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피뢰들은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광기적인 도발행동이 오히려 저들의 불순한 모략과 대결정책을 스스로 폭로하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피뢰패당의 처사는 치렬되는 살인마, 대결광으로서의 더러운 물결이 만천하에 드러내며 바닷물은 범죄자들의 추태로서 도적이 제발 저러서 떠다는 속담을 그대로 받들게 한다. 이것은 언제 가도 거짓으로 날아있기마련이다. 피뢰패당이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리 무리를 헐뜯어도 대결소동이 미처 날뛰어도 그로부러 얻을것인내외의 규탄과 조소, 수직스러운 과평말이 없다.

현 피뢰집권세력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천안》호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고집하며 도발에 매달린다면 민족의 버림과 준엄한 심판을 받고 상송장이 된 리명박역도와 같은 가련한 운명을 결코 면치 못할것이다.

전 종 호

반공화국사기극, 특대형모략극

《천안》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피뢰당국의 비열한 사건조작놀음을 규탄단죄하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사상 최대의 남조종으로서의 《천안》호침몰사건의 진면모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지만 피뢰패당은 지금껏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편결시키면서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북한관계개선을 가로막는데 적극 리용하여왔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주연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진보민주세력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최근에도 남조선에서는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고 보수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단죄하려는 투쟁이 려이어 벌어졌다.

지난 24일 남조선의 참여연대는 《천안》호침몰사건 5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론평을 발표하고 사건의 모략적정체를 파헤쳤다. 론평에서 단체는 사건이 일어났던 5년이 되었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도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북어뢰에 의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중북》으로 몰려 탄압당할 사실에 대해 개탄하였다.

단체는 과학적증거를 요구하는 학자들께 당국이 억누른 사실과 사건당시 미국측 조사단 단장 조차 《북소행》을 《립증》하는 증거로 제시된 어뢰충돌물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천안》호사건조사결과가 남조선 일부당국의 《사익적인 해석》이라는 견해가 보편화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실은 아직 백병도주변해역에 아직 잠겨있었다고 하면서 사건을 억지로 북과 편결시키는 처사를 단죄하고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5일에는 우리 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회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5. 24 조치》의 해독적추파를 폭로하면서 그 바탕으로 된 《천안》호침몰사건이 모략극임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남조선언론들도 《천안》호침몰사건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이라는 당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훈짜리 사기극으로서의 이 사건을 전라선도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해주었다.

피뢰패당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5. 24 조치》라는것을 발표시킴으로써 북한관계는 완전체화상태에 빠지고 민족적협화와 단합의 기운이 지났으며 동족대결의 국도는 이렇었다. 우리 겨레는 《5. 24 조치》야말로 통일에 백해무익하고 북한관계개선의 암적존재라는것을 예부터 절감하였다. 결코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피뢰집권세력내부에서조차 《5. 24 조치》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다.

지금 남조선전통가들은 《5. 24 조치》의 해체가 북한관계의 틀과구를 여는 중요한 계기라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으며 현 집권자가 실외성이 떨어진 《5. 24 조치》를 더이상 불붙고있지 않음을 요구하였다.

《새누리당》대표라하는자도 북한관계개선을 위해 《5. 24 조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해례는 결코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대결광기를 부리었다. 이것은 《천안》호침몰사건이 필요하였다고 평한것은 우연치 않다.

력사적사실들은 《천안》호 침몰사건이 북한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상전과 주구의 고의이며 계획적인 음모의 산물이라는 것을 날같이 고백하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현 피뢰집권세력은 아직까지도 《천안》호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꾸며내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이자들은 가스통에도 《북의 어뢰공격》과 《책임》 따위를 운운하며 《만민의 대비태세》니, 《단호한 응징》이니 하며 미친듯이 해댔다.

이러한 속에 집권자까지 나서서 사태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26일 《천안》호 5주기 《추모식》에 나타난 그는 우리를 결코 《무모한 도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너털거리면서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더니,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오라느니 하는 덜떠먹은 수작까지 내뱉었다.

피뢰패당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천안》호침몰사건을 다시금 거들며 히스메리컬하게 흥상한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도발이다. 그것이 사건을 한사코 《북소행》으로 몰아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북한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우리를 해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천안》호침몰사건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해 일어났다는 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것인가에 대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입증하였으며 그에 대한 믿음을 여러차례 천명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5년기간은 피뢰패당이 들고 나오는 《북소행》설이 동족을 모욕하고 북한관계를 파괴하며 북침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어설피게 꾸며낸 서훈짜리 날조물이라는 것이 각종 정황자료들에 의해 내외에 널리 공인된 날남이기도 하였다. 《천안》호침몰사건이 야말로 6. 15 통일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가로

북남관계의 암적존재 - 《5. 24 조치》

《천안》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피뢰당국의 비열한 사건조작놀음을 규탄단죄하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사상 최대의 남조종으로서의 《천안》호침몰사건의 진면모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지만 피뢰패당은 지금껏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편결시키면서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북한관계개선을 가로막는데 적극 리용하여왔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주연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진보민주세력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최근에도 남조선에서는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고 보수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단죄하려는 투쟁이 려이어 벌어졌다.

지난 24일 남조선의 참여연대는 《천안》호침몰사건 5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론평을 발표하고 사건의 모략적정체를 파헤쳤다. 론평에서 단체는 사건이 일어났던 5년이 되었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도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북어뢰에 의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중북》으로 몰려 탄압당할 사실에 대해 개탄하였다.

단체는 과학적증거를 요구하는 학자들께 당국이 억누른 사실과 사건당시 미국측 조사단 단장 조차 《북소행》을 《립증》하는 증거로 제시된 어뢰충돌물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천안》호사건조사결과가 남조선 일부당국의 《사익적인 해석》이라는 견해가 보편화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실은 아직 백병도주변해역에 아직 잠겨있었다고 하면서 사건을 억지로 북과 편결시키는 처사를 단죄하고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5일에는 우리 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회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5. 24 조치》의 해독적추파를 폭로하면서 그 바탕으로 된 《천안》호침몰사건이 모략극임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남조선언론들도 《천안》호침몰사건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이라는 당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훈짜리 사기극으로서의 이 사건을 전라선도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해주었다.

《조사결과》의 허위성 폭로

그는 《천안》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피뢰당국의 비열한 사건조작놀음을 규탄단죄하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사상 최대의 남조종으로서의 《천안》호침몰사건의 진면모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지만 피뢰패당은 지금껏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편결시키면서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북한관계개선을 가로막는데 적극 리용하여왔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주연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진보민주세력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최근에도 남조선에서는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고 보수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단죄하려는 투쟁이 려이어 벌어졌다.

지난 24일 남조선의 참여연대는 《천안》호침몰사건 5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론평을 발표하고 사건의 모략적정체를 파헤쳤다. 론평에서 단체는 사건이 일어났던 5년이 되었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도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북어뢰에 의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중북》으로 몰려 탄압당할 사실에 대해 개탄하였다.

단체는 과학적증거를 요구하는 학자들께 당국이 억누른 사실과 사건당시 미국측 조사단 단장 조차 《북소행》을 《립증》하는 증거로 제시된 어뢰충돌물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천안》호사건조사결과가 남조선 일부당국의 《사익적인 해석》이라는 견해가 보편화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실은 아직 백병도주변해역에 아직 잠겨있었다고 하면서 사건을 억지로 북과 편결시키는 처사를 단죄하고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5일에는 우리 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회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5. 24 조치》의 해독적추파를 폭로하면서 그 바탕으로 된 《천안》호침몰사건이 모략극임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남조선언론들도 《천안》호침몰사건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이라는 당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훈짜리 사기극으로서의 이 사건을 전라선도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해주었다.

《조사결과》의 허위성 폭로

그는 《천안》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피뢰당국의 비열한 사건조작놀음을 규탄단죄하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사상 최대의 남조종으로서의 《천안》호침몰사건의 진면모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지만 피뢰패당은 지금껏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편결시키면서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북한관계개선을 가로막는데 적극 리용하여왔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주연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진보민주세력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최근에도 남조선에서는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고 보수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단죄하려는 투쟁이 려이어 벌어졌다.

지난 24일 남조선의 참여연대는 《천안》호침몰사건 5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론평을 발표하고 사건의 모략적정체를 파헤쳤다. 론평에서 단체는 사건이 일어났던 5년이 되었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도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북어뢰에 의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중북》으로 몰려 탄압당할 사실에 대해 개탄하였다.

단체는 과학적증거를 요구하는 학자들께 당국이 억누른 사실과 사건당시 미국측 조사단 단장 조차 《북소행》을 《립증》하는 증거로 제시된 어뢰충돌물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천안》호사건조사결과가 남조선 일부당국의 《사익적인 해석》이라는 견해가 보편화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실은 아직 백병도주변해역에 아직 잠겨있었다고 하면서 사건을 억지로 북과 편결시키는 처사를 단죄하고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5일에는 우리 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회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5. 24 조치》의 해독적추파를 폭로하면서 그 바탕으로 된 《천안》호침몰사건이 모략극임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남조선언론들도 《천안》호침몰사건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이라는 당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훈짜리 사기극으로서의 이 사건을 전라선도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해주었다.

《조사결과》의 허위성 폭로

그는 《천안》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피뢰당국의 비열한 사건조작놀음을 규탄단죄하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사상 최대의 남조종으로서의 《천안》호침몰사건의 진면모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지만 피뢰패당은 지금껏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편결시키면서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북한관계개선을 가로막는데 적극 리용하여왔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주연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진보민주세력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최근에도 남조선에서는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고 보수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단죄하려는 투쟁이 려이어 벌어졌다.

지난 24일 남조선의 참여연대는 《천안》호침몰사건 5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론평을 발표하고 사건의 모략적정체를 파헤쳤다. 론평에서 단체는 사건이 일어났던 5년이 되었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도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북어뢰에 의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중북》으로 몰려 탄압당할 사실에 대해 개탄하였다.

단체는 과학적증거를 요구하는 학자들께 당국이 억누른 사실과 사건당시 미국측 조사단 단장 조차 《북소행》을 《립증》하는 증거로 제시된 어뢰충돌물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천안》호사건조사결과가 남조선 일부당국의 《사익적인 해석》이라는 견해가 보편화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실은 아직 백병도주변해역에 아직 잠겨있었다고 하면서 사건을 억지로 북과 편결시키는 처사를 단죄하고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5일에는 우리 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회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5. 24 조치》의 해독적추파를 폭로하면서 그 바탕으로 된 《천안》호침몰사건이 모략극임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남조선언론들도 《천안》호침몰사건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이라는 당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훈짜리 사기극으로서의 이 사건을 전라선도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해주었다.

조일우호친선협회 성명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3월 26일 일본의 교도부와 가나가와현, 야마구치현, 시마네현 경찰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경찰대가 총련 중앙상업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집 등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일본경찰은 장갑차와 수많은 차량들까지 앞세우고 기습적으로 들어닥쳐 총련인민들의 집을 완전봉쇄하고 차이나마한 파쇼경찰관들이 그를 조성하면서 강제수색놀음을 벌였다.

조일우호친선협회는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총련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남강도적인 탄압행위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이번에 일본의 수사당국은 그 무슨 《의합법위반에 총련이 관련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는 구실밑에

강제수색놀음을 벌여놓았지만 결국 이를 립증할 아무런 물적증거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내외여론이 일치하게 평하는바와 같이 이번 강제수색이야말로 일본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전대미문의 위법수사이다.

지금까지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불법행위의 탄압행위를 수없이 감행하였지만 감히 존엄없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 총련중앙의 책임일꾼의 대외친선의 성명을 상대로 이런 횡포한 파쇼적폭거를 감행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에서 백주에 감행된 이런 파쇼적행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고 엄중한 자주권침해행위이다.

현실적으로 이번 사건이 일본정찰청의 폭압지령에 따라 감행되고 위법적인 강제수색에 명장을 발부른것이 사법당국이 라는 사실은 부당수색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정부당국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책동에 편승하는 한편 일본사회의 우익파, 파쇼화파를 더욱 다그치고 저들의 대일적개성을 활화산으로 일본정부당국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책동에 편승하는 한편 일본사회의 우익파, 파쇼화파를 더욱 다그치고 저들의 대일적개성을 활화산으로 일본정부당국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책동에 편승하는 한편 일본사회의 우익파, 파쇼화파를 더욱 다그치고 저들의 대일적개성을 활화산으로 일본정부당국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책동에 편승하는 한편 일본사회의 우익파, 파쇼화파를 더욱 다그치고 저들의 대일적개성을 활화산으로 일본정부당국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책동에 편승하는 한편 일본사회의 우익파, 파쇼화파를 더욱 다그치고 저들의 대일적개성을 활화산으로 일본정부당국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일본반동들이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릴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적개성을 활화산처럼 용솟음치게 될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지 70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무고한 총련과 제일동포들에게 갖은 못된것을 대하는 일본반동들은 극도의 타인족 배타주의에 뿌리를 둔 그 모든 인본유린범죄행위의 대가를 반드시 친력 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이 진실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총련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주제104(2015)년 3월 28일 평 양

제육으로 민족의 역센 기상을 떨치는데 이바지하겠다

제7차 전국체육인민대회에 참가한 총련 체육대표단 단장 강호성 제일본조선체육연합회 부회장이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기자:제7차 전국체육인민대회에 참가한것을 열렬히 축하한다. 대회에 참가한 소감에 대하여 말해주어오면 한다.

부회장:나만이 아니라 대표단의 모든 성원들은 흥인할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뜨겁게 격응하여 받아들였으며 그이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행렬을 하는 최상의 영광도 지니었다.

이것은 우리 대외연락선들만이 아닌 총련의 모든 체육인들이 받아안은 영광이다.

우리들은 전체 동포체육인들의 열화와 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열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영광을 받아안고도 총련의 체육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와 심혈이 눈앞에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총련의 체육인들과 일군들에게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의 값있는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조국선수들과 함께 국제경

제육으로 민족의 역센 기상을 떨치는데 이바지하겠다

제7차 전국체육인민대회에 참가한 총련 체육대표단 단장 강호성 제일본조선체육연합회 부회장이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기자:제7차 전국체육인민대회에 참가한것을 열렬히 축하한다. 대회에 참가한 소감에 대하여 말해주어오면 한다.

부회장:나만이 아니라 대표단의 모든 성원들은 흥인할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뜨겁게 격응하여 받아들였으며 그이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행렬을 하는 최상의 영광도 지니었다.

이것은 우리 대외연락선들만이 아닌 총련의 모든 체육인들이 받아안은 영광이다.

우리들은 전체 동포체육인들의 열화와 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열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영광을 받아안고도 총련의 체육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와 심혈이 눈앞에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총련의 체육인들과 일군들에게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의 값있는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조국선수들과 함께 국제경

제육으로 민족의 역센 기상을 떨치는데 이바지하겠다

제7차 전국체육인민대회에 참가한 총련 체육대표단 단장 강호성 제일본조선체육연합회 부회장이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기자:제7차 전국체육인민대회에 참가한것을 열렬히 축하한다. 대회에 참가한 소감에 대하여 말해주어오면 한다.

부회장:나만이 아니라 대표단의 모든 성원들은 흥인할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뜨겁게 격응하여 받아들였으며 그이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행렬을 하는 최상의 영광도 지니었다.

이것은 우리 대외연락선들만이 아닌 총련의 모든 체육인들이 받아안은 영광이다.

우리들은 전체 동포체육인들의 열화와 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열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영광을 받아안고도 총련의 체육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와 심혈이 눈앞에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총련의 체육인들과 일군들에게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의 값있는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조국선수들과 함께 국제경

제육으로 민족의 역센 기상을 떨치는데 이바지하겠다

제7차 전국체육인민대회에 참가한 총련 체육대표단 단장 강호성 제일본조선체육연합회 부회장이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기자:제7차 전국체육인민대회에 참가한것을 열렬히 축하한다. 대회에 참가한 소감에 대하여 말해주어오면 한다.

부회장:나만이 아니라 대표단의 모든 성원들은 흥인할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뜨겁게 격응하여 받아들였으며 그이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행렬을 하는 최상의 영광도 지니었다.

이것은 우리 대외연락선들만이 아닌 총련의 모든 체육인들이 받아안은 영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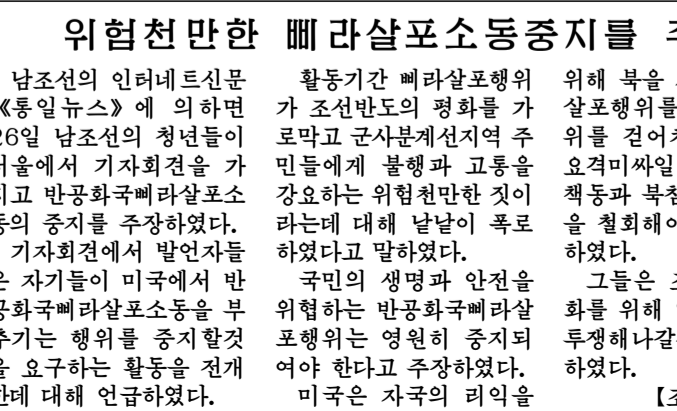
우리들은 전체 동포체육인들의 열화와 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열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영광을 받아안고도 총련의 체육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와 심혈이 눈앞에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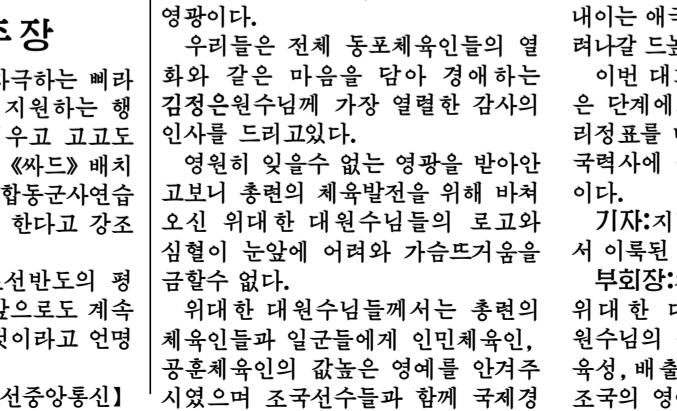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총련의 체육인들과 일군들에게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의 값있는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조국선수들과 함께 국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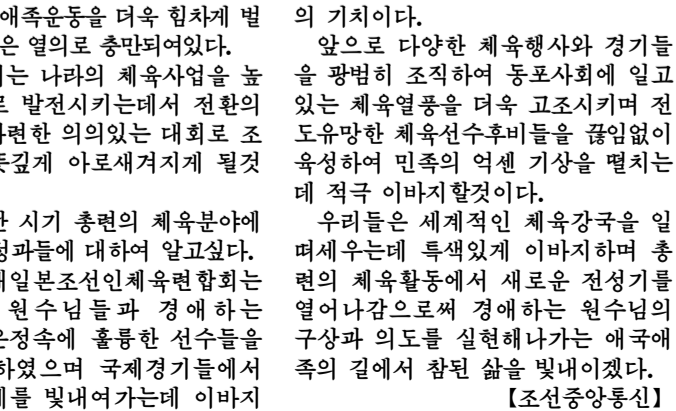
선거개입행위의 주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선거개입행위의 주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선거개입행위의 주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선거개입행위의 주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군사적 해외진출을 노린 위험한 움직임

현시기에 와서 일본은 그 어느때보다도 군사대국화의 길로 미친듯이 내달리고 있다.

일본당국이 《자위대》에 대한 지휘관리 체계, 무력의 역할과 권능을 《국방군》의 성격에 맞게 대폭 확대개편해나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초부터 일본의 보수정치세력들에서는 《자위대》를 완전한 정규부대로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는 문제가 《보통국가》건설을 위한 주요문제처럼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무력보유를 금지한 헌법상계약으로 심히 억압되었다.

일본의 현 헌법 9조는 무력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지금까지 헌법이 국가의 자위권까지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데 확대개편하는데 달라붙었다.

우선 방위성의 지도관리체계를 군사실무부서로 개편하면서 《문민통제》기능을 대폭 약화시키고 있다.

《문민통제》는 현역군인이 아닌 사복관리들이 제복군인들에 대한 인사관리, 군사예산과 정책, 훈련과 양성에 이르기까지의 군사사업 전반을 통제관리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문민통제》원칙을 전수방위형 무력관리체계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해놓았으나 행정중시후 군사대국화지향이라고 볼 때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일본들의 군사적행동이 커지고에 따라 군인들의 정책편향을 일정하게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자민당은 2007년 1월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켰을 계기로 무관에 의한

국방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방위성개혁을 들고나왔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방위상의 사업을 방조해주게 되어있는 문관참사관제도 무관참사의 보좌관제도로 바뀌고 구제적인 개혁단계까지 확정되었으나 그후 3년간의 민주정권으로 중도반단되었다. 2013년 2월 방위성에 《성개혁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점의 개혁안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체화해나가고자 하였으며 8월에는 방위성의 문관조직인 운용기획국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무관참사의 통합마로감부로 일원화할 때 대한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4월에는 《방위성설치법》을 개정하여 방위에 산을 비롯한 방위정책작성에 40명의 무관들을 받아들였으며 방위성뿐만 아니라 산하부처지휘기구전반에서 문관의 비중을 줄이거나 무관기구에 흡수시킬것을 계획하였다.

현 일본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방위성 개혁의 총적방향은 《문민통제》기능을 약화시키고 무관들의 권능을 높여 앞으로 나오게 될 《국방군》에 대한 군사실무지도능력을 원만히 갖추어놓으려는 데 있다.

다음으로 《자위대》무력에 대한 통합작전지휘체계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일본은 1954년 7월 《자위대》의 창설 때부터 통합지휘기구로서 육해공 각 마로감부의 마로장들을 성원으로 하는 통합마로회의를 운영해왔다. 통합마로회의의 장은 현직 총합방위계획을 작성하는데서 방위청 장관을 보좌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상시의 부대운영과 지휘에 있어 관여할 수 없거나 유사시 긴급출동지휘도 임시 편성된 합동부대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민당정부는 2006년 3월에 통합마로회의를 폐지하고 통합마로감부를 신설하고 육해공 각 《자위대》무력에 대한 작전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통합마로감부의 방위상보좌관들과 무관지휘관들이 겹치면서 평상시와 유사시의 무력동원태세에 대한 작전지휘에 있어서는 책임구분이 명확치 못하고 혼란을 빚어 생기는 것과 같은 약점을 드러내

보게 되었다. 이로부터 현 정부는 2013년 6월 통합마로장은 방위상보좌에 전임하도록 하고 그밑에 통합합방관직제를 새로 내와 각 《자위대》무력에 대한 작전지휘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고 추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특상총대》를 새로 내출것을 결정하고 그 실무작업을 다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특상《자위대》는 전국을 5개로 나누고 그 밑에 《방위》를 하는 방면대로 구성되었으며 그 지휘관리는 매개 방면 총감부들이 담당하고 있다.

《특상총대》는 그 방면 총감부들이 가지고 있던 작전지휘기능들을 통합한 특군사령부격으로서 《방위계획대장》에 따라 새로 개편되는 기동사단 및 러단과 해병대기능을 가진 수륙기동단을 포함하여 특상부대전반에 대한 통합지휘를 맡아하게 된다. 현재 항공《자위대》의 작전사령부로서는 《항공총대》가 있고 해상《자위대》에서는 《자위함대》가 사령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특상총대》가 나오게 되면 《자위대》는 특해공군의 작전사령부를 다 갖추는 것으로 되며 거기에 통합마로감부의 통합지휘체제까지 수립되면 일본무력은 전쟁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정규군으로 되게 된다.

다음으로 《자위대》의 입무와 병종의 《국방군》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확대하고 있다.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1954년에 만들어진 《자위대》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방위총론》과 내란에 대한 《치안총론》을 기본입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3년, 1994년을 비롯하여 몇차례의 개정과 1997년 미국의 《방위협력지침》개정, 2007년 1월 방위청의 성격적 개조를 계기로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 해외 일본인보호, 국제평화협력활동, 공해상에서의 기피해제 등으로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자위대》의 직접적인 해외진출을 안보정할 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해외에서의 작전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임시적인 특별조치법들에 근거하여 다국적군참가와 해외파병활동을 벌여왔다.

현 일본정부는 2013년 11월 《자위대》법의 《해외일본인보호》규정을 임의의 지역에 대한 특상부대전출까지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라면 《해외일본인보호》를 빚대며 해당 나라나 지역의 향구나 비행정자까지만 들어갈수 있었던것을 문제가 발생한 장소까지 특상장갑부대가 거침없이 진출할수 있는것을 의미한다. 이어 개정하여 병종수를 정규군의 체모에 맞게 늘여가고있으며 병종 등을 개정할것을 검토하고있다.

현 일본정부가 이처럼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것은 《적국정벌주의》의 간판 밑에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영연한 기본입무로, 법적으로 고착시켜 저들의 무력을 임의의 시기에 임의의 지역으로 제한없이 기동전개할수 있는 침략무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제 일본의 《자위대》무력이 《국방군》으로 변화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일본무력이 《자위대》로 넘어오는가, 《국방군》으로 되는가는 크게 중요치 않다. 그 부류이냐 어떻든 일본은 이미 더 많은 나라에 대한 침략준비를 완성단계에 옮긴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극도로 군국화되어가는 일본을 두고 지난 세기의 일제의 범죄적 전횡을 다시 빚어내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일제가 패망한지 70년이 되어온다. 세계는 아직까지 과거반성을 똑바로 하지 않고 또다시 군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일본을 예리한 눈초리로 경계하고있다. 라 명성

수령의 유훈을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받든 인민

여러 나라 인사를 격찬

세계 진보적인사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성원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철예공산당(프롤레타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그의 사상리론적업적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자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유예에게 있어서 고귀한 재부로 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것은 후손만대에 길이 정승될 특출한 업적이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오늘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평도말에 수령의 뜻과 녀름을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적봉모에 세계는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렇

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유훈은 거대한 건전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수령의 유훈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평도말에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받들고 있다.

이것은 세계 혁명적인사들을 사회주의와 진보, 평화를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 고무해주고있다.

발리엔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의 위원장대리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각하의 구상과 녀름을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의 힘찬 대진군의 진두에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신다. 그리고이께서는 총비서각하의 유훈을 가지로 높이 드시고 혁명을 이끄신다고 칭송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선 및 문화혁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인민 만세!

과 뜻을 신념으로 간직한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다고 강조하였다.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평도말께서는 조선의 부강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어 거대한 애국유산을 물려주시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평도말에 조선인민은 이 유산을 사회주의조선의 만년재부로 빛내이고 있다.

평도말의 고귀한 유산이 있었기에 조선은 눈부신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었다.

새 유승을라이공산당 총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승리의 보물로 추켜들었다.

위대한 수령들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김정은동지의 평도말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보낼것이다.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하고있는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우리 나라 방문소감을 피력

브라질공산당 에스베리우 산토주위원회 조직서 안데르손 팔카우 아베베두가 3일 인터넷신문 《세플로다리아우》와의 회견에서 우리 나라 방문소감을 피력하였다.

그는 지난해 7월 조선을 방문하여 많은것을 보고 느끼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말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찬양하였다. 특히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오르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

게 전진하고있는데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인민대중의 정치적리력이 훌륭히 담보되고있으며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 등 사회적시책이 높은 수준에서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브라질 정계 인사 우리 나라 방문소감을 피력

브라질공산당 에스베리우 산토주위원회 조직서 안데르손 팔카우 아베베두가 3일 인터넷신문 《세플로다리아우》와의 회견에서 우리 나라 방문소감을 피력하였다.

그는 지난해 7월 조선을 방문하여 많은것을 보고 느끼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말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찬양하였다. 특히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오르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

게 전진하고있는데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인민대중의 정치적리력이 훌륭히 담보되고있으며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 등 사회적시책이 높은 수준에서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천안》호침몰사건과 그에 따른 《5.24조치》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정답을 다시 밝힌다》를 24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타프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0년의 《천안》호침몰사건 공화국에 가하고있는 《5.24조치》를 해제할것을 남조선에 요구하였다.

공화국은 자기 나라와 상관없는 이 사건에 대해 《커다라》하

나 《유감》을 표명하려 하지 않는다》고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는 강조하였다.

담화에 밝혀졌있는바 같이 공화국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해조사에 즉시 착수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고있다.

조선국방위원회는 이를 위해 관공정이나 합의는 인민의 강소애를 이겨내야 한다는 모든 물음을 가져다놓을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

인민 남조선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계속 공화국과 편계시킴으로써 《5.24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강요하고있다. 남조선 특등종족제정관도 다른 리명박 일당이 벌었다고 경고하였다.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 인터넷통신인 로스탈, 이란의 파르스트, 프랑스의 TV방송, 인디아의 지 뉴스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영국의 BBC방송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베네치아에서 담화 발표

베네치아에서 열린 유럽연합 회의 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강행되는 미해와 남조선피괴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위험천만한 《키 리콜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준벌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런 합동군사연습은 침략전쟁연습, 핵전쟁연습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포괄적인 침해로 된다.

미국은 부당한 군사연습을 통해 남조선을 더욱 틀어쥐어 조선의 북남관계전진을 가로막

고 주변나라들을 포위억제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의연히 긴장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자기의 무력을 증강할수 있는 구실을 항구적으로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전적지정책이 분별을 잃고 극도로 포악무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대응 역시 더욱더 강도높게 벌어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베네치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미국과 남조선이 2010년 11월의 연평도포격전과 그 이후의 조선반도정세가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이 《북의 정권붕괴》, 《북의 공적거점에 대한 선제 공격》, 《공급사태에 대처한 북에 대한 침입》 등을 목적으로 한 군사연습을 진행하면 조선이 반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립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 최악의 경우 군사충돌과 나아가서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킬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이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조건과

한정을 마련하며 조선이 거듭 호소하는 대화에 진지하게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조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가나와와현민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군사적도발과 다른없는 《키 리콜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용납될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를 치솟는 분노를 안고 규탄한다.

조선에 대한 《세계적포기》를 목적으로 선제적공격을 실시하고있는 이 군사연습은 민족의 운명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녀름을 짓밟고 부정확적으로 서 속시 중지해야 한다.

이 연습은 조선에 대한 침공과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침략전쟁연습이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다.

상태를 힘으로 압박하는것은 범죄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각지에서 파괴와 살해를 거듭해 온 저들의 범죄를 돌아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인종주의정책 비난

쿠바전국자 및 예술가등이 20일 컴퓨터를 발표하여 미국의 인종주의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의 사법당국이 죄 없는 흑인들을 살해한 백인경찰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린것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흑인종차별적인 처사로 략인하

였다.

컴퓨터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사법체도를 끝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국제원자력기구 그릇된 처사 비난

이란원자력위원회 대변인이 24일 한 방수회의 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23일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 이란의 핵물질이 평화목적에 이용되고있다고 결론을 내릴수 없다는니 튀니 하면서 시비해나선데 대해 단죄하고 그의 발언에서 새로운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것은 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평화목적개발을 문제시하는 부당한 보고서들을 발표했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는 조소하였다.

오스트리아 단체 주장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는 소식을 커다란 격분속에서 접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선의 제안에 침략전쟁연습에 대답해나갔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군사연

습은 지역을 고도의 전쟁위협에 떠밀게 될것이다.

미국은 미국정부가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한편 단체는 같은 날 오스트리아주체 남조선피괴사관에 도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북남사이의 대화를 나설것을 요구하는 항의편지를 보내었다.

성명 발표

제공격과 침략을 노린 전쟁연습이다.

조선전쟁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불안정한 정전상태에서 진행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도발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가 하는것은 2010년 11월의 연평도포격전과 그 이후의 조선반도정세가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이 《북의 정권붕괴》, 《북의 공적거점에 대한 선제 공격》, 《공급사태에 대처한 북에 대한 침입》 등을 목적으로 한 군사연습을 진행하면 조선이 반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립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 최악의 경우 군사충돌과 나아가서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킬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이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조건과

한정을 마련하며 조선이 거듭 호소하는 대화에 진지하게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조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가나와와현민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군사적도발과 다른없는 《키 리콜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용납될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를 치솟는 분노를 안고 규탄한다.

조선에 대한 《세계적포기》를 목적으로 선제적공격을 실시하고있는 이 군사연습은 민족의 운명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녀름을 짓밟고 부정확적으로 서 속시 중지해야 한다.

이 연습은 조선에 대한 침공과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침략전쟁연습이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다.

상태를 힘으로 압박하는것은 범죄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각지에서 파괴와 살해를 거듭해 온 저들의 범죄를 돌아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한정을 마련하며 조선이 거듭 호소하는 대화에 진지하게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조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가나와와현민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군사적도발과 다른없는 《키 리콜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용납될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를 치솟는 분노를 안고 규탄한다.

조선에 대한 《세계적포기》를 목적으로 선제적공격을 실시하고있는 이 군사연습은 민족의 운명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녀름을 짓밟고 부정확적으로 서 속시 중지해야 한다.

이 연습은 조선에 대한 침공과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침략전쟁연습이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다.

상태를 힘으로 압박하는것은 범죄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각지에서 파괴와 살해를 거듭해 온 저들의 범죄를 돌아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최근시기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에서 여러 세력들이 분열이 지속되고 극단적인 무장단체들에 의한 테러행위가 만연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을 포함하여 적어도 16개의 주요무장조직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약하고있다. 그 조직들은 여러 나라들의 국경을 합부르 넘나들면서 평화적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략치, 집단학살 등으로 사회적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있다.

문제는 개별적나라의 힘으로는 이러한 무장조직들을 소탕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그것은 한 나라에서 소탕작전이 개시되는 경우 무장조직들은 제법러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세력을 확대해가며온다. 이러

한 현실은 어느 한두 나라의 힘만으로 대륙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아프리카나라들은 호상협력과 단합을 실현하는데 신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지난 1월 에티오피아에서 제24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었다.

대륙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는 시점에서 열린것으로 하여 회의에 대한 아프리카나라 인민들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남다른 것이었다.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우리는 아프리카대륙에 새로운 위협들이 가해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어야 한다. 무분별한 살인과 재산파괴, 노예화는 우리의 집단적안전과 발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회의는 나라들사이의 단합과 협조를 실현하여 테러를 근절하고 대륙의 안정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아프리카나라들사이에서 테러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테러조직들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적협력이 강화되고있다.

일마전 아프리카동맹은 대륙의 커다란 위협으로 되는 무장단체를 《보코 하람》과 싸우기 위한 협력을 조직해나간다는 부당한 모든 시련과 난관을 반드시 이겨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로씨야가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의 날인 5월 9일을 계기로 해마다 여러가지 경축행사를 진행해온 로씨야이지만 이번에는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로씨야는 이미 지난해에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기념메달을 제정하는것으로 올해의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사업을 개시하였다.

로씨야의 28개 도시에서 전승절경축행사가 진행되며 여기에는 7만 8 500여명의 인원과 약 2 000대의 군사기체가 동원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민스크와 비슈케크를 비롯한 독립국가협동체나라 도시들에서도 열병식이 진행되게 된다.

모스크바에서의 열병식은 약 1만 5 000명의 군인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2 010년 65돐 경축행사의 참가자수의 2배라고 한다. 경축연회, 예포발사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전승 70돐을 장식하게 된다.

경축행사의 의의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로씨야는 수십개 나라 국가수반들과 국제기구장들에게 전승절경축행사를 초청장을 보냈으며 벌써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행사에 참가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직 전시적인 행사일정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될것이라고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다.

로씨야가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을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것은 단호히 정주년이라는 의미로만 해석할수 없다.

나와 지도자들이 행사에 참가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직 전시적인 행사일정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될것이라고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다.

로씨야가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을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것은 단호히 정주년이라는 의미로만 해석할수 없다.

히 요구하려 하고있다.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발발의 책임을 이전 쓰러에 전가하고 나치즘을 선동하는 비정확적인 현상들이 하나의 사회주의로 나타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도이원한다는 책임이 없다는니, 쓰러군이 도이원한다는 면서 공격했다는 허는 황당한 주장들이 왕왕 울려나오고 쓰러군인들의 기념비가 해체되는

가 하면 나치즘을 신봉하고 비호하는 망둥들이 빼앗겨 감행되고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쓰러의 계승국인 로씨야의 대외적평상에 적을 몰고 로씨야에 대한 적대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불순한 야망에 따른것이다.

파멸적인 역사적목시도들에 관계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대응해온 로씨야는 전승 70돐을 계기로 다시한번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결정적기여를 한 쓰러의 업적과 역사를 더욱 빛내려 하는것이다.

일마전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5월 9일 전승절은 우리 나라를 단합시키는 날이

다. 이를 계기로 로빙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정중히 제1차 세계대전발발의 책임을 이전 쓰러에 전가하고 나치즘을 선동하는 비정확적인 현상들이 하나의 사회주의로 나타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도이원한다는 책임이 없다는니, 쓰러군이 도이원한다는 면서 공격했다는 허는 황당한 주장들이 왕왕 울려나오고 쓰러군인들의 기념비가 해체되는

가 하면 나치즘을 신봉하고 비호하는 망둥들이 빼앗겨 감행되고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쓰러의 계승국인 로씨야의 대외적평상에 적을 몰고 로씨야에 대한 적대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불순한 야망에 따른것이다.

파멸적인 역사적목시도들에 관계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대응해온 로씨야는 전승 70돐을 계기로 다시한번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결정적기여를 한 쓰러의 업적과 역사를 더욱 빛내려 하는것이다.

일마전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5월 9일 전승절은 우리 나라를 단합시키는 날이

다. 이를 계기로 로빙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정중히 제1차 세계대전발발의 책임을 이전 쓰러에 전가하고 나치즘을 선동하는 비정확적인 현상들이 하나의 사회주의로 나타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도이원한다는 책임이 없다는니, 쓰러군이 도이원한다는 면서 공격했다는 허는 황당한 주장들이 왕왕 울려나오고 쓰러군인들의 기념비가 해체되는

가 하면 나치즘을 신봉하고 비호하는 망둥들이 빼앗겨 감행되고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쓰러의 계승국인 로씨야의 대외적평상에 적을 몰고 로씨야에 대한 적대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불순한 야망에 따른것이다.

파멸적인 역사적목시도들에 관계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대응해온 로씨야는 전승 70돐을 계기로 다시한번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결정적기여를 한 쓰러의 업적과 역사를 더욱 빛내려 하는것이다.

일마전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5월 9일 전승절은 우리 나라를 단합시키는 날이